

“사람 사는 세상”을 받아보시는 분들께.

알찬 결실을 기원하는 가을의 문턱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을에도 풍성한 결실이 맺기를 기원하면서 글월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많은 좌절을 느끼며 정치인들의 무능과 안 일을 탓하고 또 그들의 부도덕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독자적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재벌에 약하고 정부에 약하고 총재에게 약하고 소신에 약합니다.

그 이유를 눈여겨 보면 정치자금이 이유인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엔가 기대야만 정치자금을 얻어 쓸수가 있는데 그것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맥을 못추게 합니다.

당에서 자금을 타 쓰려면 당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며 당총재가 주는 자금 때문에 제대로 충간을 하지 못하고 소신 없는 충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소신있게 행동을 하려면 우선 정치자금에서 해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자금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모아서 주는 것이라면 얼마나 멋떳하고 또 자랑스럽게 쓸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이 마련해 준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용기 백배하겠습니까

국민이 모아준 정치자금은 데없이 깨끗한 것이며 함부로 쓸수 없으며 또한 자랑스러우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곳에는 절대로 쓸수 없는 그런 자금입니다. 우리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또한 정치인들이 더러운 정치자금에서 홀로 설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더구나 죽망 받는 정치인이 부정한 정치자금의 유혹으로 해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온몸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유로 해서 가장 양심적이고 또한 이나라의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게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무현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2년3개월간이란 의정생활을 통해서 노무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은 우리 국민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감히 말합니다.

또한 야당통합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의 행동이 얼마나 혁신적인가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노무현은 더욱 국민의 사랑과 지지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도와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꾸짖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을 위하여 노무현이 한 몸 바칠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1990년 8월 노무현 후원회 올림

32073